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서관은 지난 4월,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을 세계 최초로 개관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 장애우에게 음성으로 도서의 내용을 들려 준다. 시각 장애우는 전용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버에 접속해 음성으로 제작된 도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잘 드러나 있듯이, 정보화는

- ① 정보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촉진시킨다.
- ② 익명성을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킨다.
- ③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격차를 완화시킨다.
- ④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 ⑤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여 정보 과잉 현상을 완화시킨다.

2.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닌 사람의 윤리적 태도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자체로 생겨나 지속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저것에서 연유하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다. 아들은 미래의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과거의 아들이다.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을 때 아들의 행복 역시 불완전하다.

-〈보기〉-

- ㄱ.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 ㄴ.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남도 소중하게 여긴다.
- ㄷ.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생명체를 존중한다.
- ㄹ. 자연계에서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3. 다음에 제시된 ‘을’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 당신은 『지구적 책임성』을 출간한 이후 여러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윤리의 확립과 보급에 힘써 왔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윤리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을 : 우선 모든 인간을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종교 등에 관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들이 우리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구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 공기와 물, 흙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

- ㄱ. 공동체주의적인 가치를 경시한다.
- ㄴ. 이기적인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강조한다.
- ㄷ. 보편적인 윤리의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 ㄹ. 윤리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어 실천이 어렵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4. 다음은 어떤 이념에 대해 한 모듬의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이
다.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특징	㉠역사적 상황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 ㉡높은 수준의 통합 능력과 분할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동일한 역사, 문화, 혈연, 지연 등을 공유하는 집단의 '우리 의식'에 기반을 둠
기능	㉣순기능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 ㉥국가 독립과 민족 자결의 정신적 기반이 됨 ㉦역기능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침략주의나 팽창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① ㉠-자유주의 시대에는 국민주의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주의로 나타났다.
- ② ㉡-분할되어 있던 독일이 19세기에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 ③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 ④ ㉣-영국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확대해 나갔다.
- ⑤ ㉤-나치즘을 표방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5. 다음 두 인간관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사단(四端)은 마치 사람이 사지(四肢)를 타고 나는 것처럼 누구나 타고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하며, 그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면 사회적 악에 이르게 된다.

— < 보 기 > —

ㄱ. 내면적 도덕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ㄴ. 인간의 선천적인 성품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ㄷ. 인륜이 구현되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도덕적인 사회를 추구한다.
ㄹ.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밑줄 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적합한 사상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1992년 무뇌아로 태어난 ‘베이비 테레사’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테레사의 부모는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의사들은 이 결정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법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후 테레사는 사망하였다.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기가 살아 있을 때 바로 죽게 하는 장기의 이식이 옳은가? 거의 대부분의 생명윤리학자들은 장기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 ① 자율은 도덕 법칙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이다.
② 행위할 때 항상 보편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도덕적 행위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이다.
④ 세계에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인간의 의지밖에는 없다.
⑤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에 상관 없이 의무는 절대적이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갭’은 사회 참여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② ‘갭’은 생명의 역동적인 힘을 믿고 체험의 객관성을 중시하였다.
③ ‘울’은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④ ‘울’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갭’과 ‘울’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였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갭 :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을 추구하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울 : 남의 나라 사랑하기를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천하의 혼란은 극복될 것이다.
병 : 옛날의 훌륭한 통치자들은 길에 재를 버리는 사람에게도 중벌을 내렸다. 재를 버리는 것은 가벼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무겁게 했던 것이다.

- ① ‘갭’은 규범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였다.
② ‘갭’은 통치자보다는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하였다.
③ ‘울’은 생산적인 노동과 검약하는 생활을 강조하였다.
④ ‘울’은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⑤ ‘병’은 상과 벌로써 인간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가), (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실업과 경기 불황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 변동과 유효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빈곤과 실업의 문제는 유산자(有産者) 계급이 무산자(無産者) 계급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무산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 유산자 계급을 무너뜨리고 착취 없는 무계급 사회를 만들 때,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 ① (가)는 ‘정부 실패’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② (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조한다.
④ (나)는 사회 간접 자본 및 공공재의 공급 증대를 반대한다.
⑤ (가)는 공기업의 민영화 확산을, (나)는 사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10. 다음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국 전통 사상 중에는 이론이 다르면 이단으로 배척하고, 경전에 대한 해석에서 한마디만 달라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전통 사상은 다른 사상이나 관점들에 대한 관용이나 수용의 자세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이(理)는 존귀하고, 기(氣)는 비천하다.”
ㄴ. “풍류도(風流道)에는 유, 불, 도가 포함되어 있다.”
ㄷ.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다.”
ㄹ. “사람은 물(物)을 거울 삼지 말고, 백성을 거울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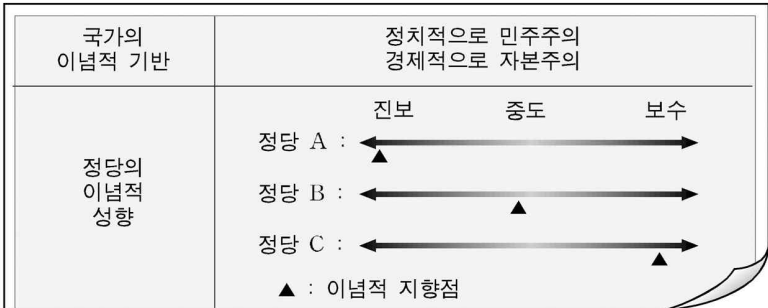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신앙과 이성 둘 다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모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철학은 창조된 사물에서 출발하여 신에게 이르지만, 신학은 신에서 출발한다.
을 :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철학적인 고찰, 즉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신에 대한 확실한 앎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감각적인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가장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신'에게로 다가간다.

- ① '갑'은 모든 존재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적 사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 ② '을'은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갑'은 '을'에 비해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였다.
- ④ '갑'과 '을'은 여러 가지 덕 중에서 사랑을 가장 중시하였다.
- ⑤ '갑'과 '을'은 현실에서 추구되는 행복이 불완전하다고 강조하였다.

12. 그림은 어떤 국가의 세 정당이 지닌 이념적 성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는 기득권층을 주된 지지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 ② C는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볼 것이다.
- ③ A는 C에 비해 분배보다 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다.
- ④ B는 A에 비해 사회 개혁 의지가 더 강할 것이다.
- ⑤ C는 A에 비해 사회의 기존 질서를 더 중시할 것이다.

13.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승려의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거사(居士)가 불교의 이치에 관한 글을 써서 승려에게 바치자, 승려는 그것을 펼쳐 보지도 않고 말했다. “불법(佛法)은 말이나 문자를 통하지 않고 마음만으로도 깨칠 수 있네. 종지와 먹통해 불교의 이치를 표현하려고 들면 자칫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망칠 수 있네!”

— <보 기> —

- ㄱ. 인간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단번에 깨쳐야 한다.
- ㄴ. 이론과 지식에 집착하면 전체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 ㄷ. 교리 공부와 실천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바른 길이다.
- ㄹ. 불교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므로 문헌 고증에 기초하여 불경을 이해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은 동일한 고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공자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얕아서 고스란히 잊었다 함은 무엇을 말함인가?” 안연이 말했다. “자신의 몸이나 손발의 존재를 잊고,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고, 형체를 떠나고 지식을 버려서 ㉠대도(大道)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어느 날 장주(莊周)는 ㉡꿈 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던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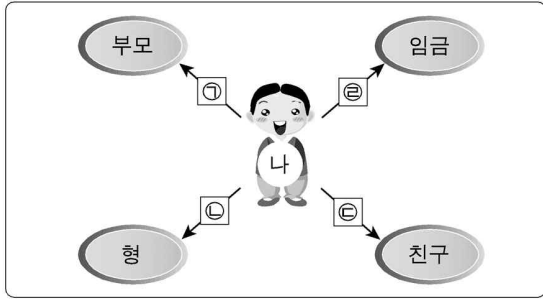
- ① (가)의 ㉠은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다.
- ② (가)에는 유가의 이상인 성인(聖人)에 이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③ (나)에서 ㉡은 집착을 버리고 해탈에 이른 상태이다.
- ④ (나)는 꿈과 현실, 나비와 장주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에는 (나)의 장주가 추구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양 방법이 드러나 있다.

15. 다음은 두 사상가의 가상 대화이다. 두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사단(四端)도 '정(情)' 이고 칠정(七情)도 '정' 인데, 사단과 칠정이라는 서로 다른 명칭이 있게 된 것은 '가리켜 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옛 성현이 성선(性善)을 증명하면서 사단을 예시할 때는 모두 선한 것들만을 가리켜 말했고 그 주안점이 '이(理)'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발(理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에 칠정에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다 포함되고 그 주안점이 '기(氣)'에 있지요. 그래서 기발(氣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을 : '정'이 비록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그 어느 것이든 다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타고 있지요. 다만 그 중 '이'가 '기'에 가리어 자의적인 '정'은 악한 것이고, '이'가 '기'에 가리어지지 않아 '기'가 '이'를 그대로 따른 '정'은 선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한 정과 악한 정으로 나뉘는 것이지요.

- ① '갑'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
- ② '갑'은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이'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부정한다.
- ④ '을'에 따르면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다르지 않다.
- ⑤ '갑'과 '을'은 칠정이 '기'가 발한 것임을 인정한다.

16. 그림의 ㉠~㉣은 유교적 질서를 강조한 전통 사회의 인간 관계에서 중시된 덕목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 근본은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② 인(仁)의 실천은 ㉡로부터 시작된다.
 ③ ㉠과 ㉡은 수평적 인간 관계를 추구한다.
 ④ ㉢은 ㉣보다 의리 정신을 더 중시한다.
 ⑤ ㉠, ㉢, ㉣, ㉡의 실천은 '서(恕)'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삶에 있어서 정의, 지혜, 절제, 용기보다 더 훌륭한 것은 올바른 이성이다. 스스로의 행동이 이성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운명은 신이 내려준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더할 나위 없는 마음의 평화가 얻어진다.

을 :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불멸성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 ① '갑'은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다고 보았다.
 ② '갑'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다.
 ③ '을'은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④ '갑'과 '을'은 개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갑'은 정념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을'은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였다.

18. 다음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북한산 비봉에는 오래된 비(碑)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비를 도선국사의 비라고도 하였고 무학대사의 비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직접 비봉에 올라 비바람에 마모된 글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읽어 보았다. 그 결과 이 비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이 밝혀졌다.

— < 보 기 > —

ㄱ.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ㄴ. 속설에 근거한 지식을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 된다.
 ㄷ. 관찰과 실험을 거쳐 판단하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
 ㄹ.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단편적이고 우연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밑줄 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성을 통한 덕의 추구하고 행복은 고대 그리스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다. 모든 악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본 '갑'은 덕과 이성적인 삶을 동일시하였고, '을'은 덕이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중용의 생활 자세를 강조하였다. '병'은 영혼의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 보 기 > —

ㄱ. '갑'과 '을'은 절대주의적인 입장을, '병'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ㄴ. '갑'과 '병'은 덕과 관련하여 주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을'은 이성과 의지를 함께 중시하였다.
 ㄷ. '을'은 현상을 초월한 세계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는 반면에 '병'은 현실 속에서 찾았다.
 ㄹ. '갑', '을', '병' 모두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지(知)와 행(行)은 분리될 수 없으며, 본래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지행의 본체이다. 인간은 누구나 본래부터 참된 앎을 갖고 있다. 참된 앎을 근거로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있는 천리(天理)로서의 순수한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

을 : 덕은 선한 행위들을 함[行事]으로써 인간의 마음 안에 형성된다. 선천적으로 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仁)'의 '이(理)'나 '의(義)'의 '이'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본성에 따라 부지런히 선을 행하여 덕을 이루어야 한다.

- ① '갑'은 천리로서의 순수한 도덕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사욕에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완전한 앎에 이르려면 개개 사물에 있는 '이'를 철저히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을'은 욕구가 있어야 성취가 있게 된다고 보아 인간의 욕구를 긍정한다.
 ④ '을'은 인간을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율적 인격체로 본다.
 ⑤ '갑'은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주장하고, '을'은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를 엄격히 구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